

관악산 다람쥐를 연상케 하는 발바리들이 여성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다. 불특정 여성에게 행해지고 시간대도 여성들이 경제하기 힘든 새벽과 대낮에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누가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끔찍한 상황이다. 연쇄 성폭행범들은 한 번 저지른 범행의 재미에 탐닉하지만 성폭행을 당하는 피해 여성의 공포와 분노, 모멸감과 수치감은 급성 스트레스장애로부터 우울증, 심하면 정신분열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성이 파괴되어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사회의 일각에서 보여주는 쾌락과 폭력에 대한 인이한 태도는 끔찍한 범죄자를 발바리라는 애칭으로 표현하는 등 도덕적 불감증을 나타내고 있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

성폭행범은 대체로 강간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강행하고 성폭행을 반복할수록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된다. 도박의 짜릿한 재미에 맞들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도박에 중독되는 것처럼 연쇄 성폭행범들은 색스에 중독된다. 모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며 성적 환상에 거의 모든 시간을 채운다. 피해 여성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성폭행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죄책감도 덜 느낀다.

성폭행범은 남성적 우월감에 빠져 범행을 반복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성폭력의 본질은 성적 욕망의 추구에 덧붙여 분노의 표출이다.

이들이 말하는 성폭행의 이유는 일반인이 듣기에 유치하기 이를 데 없어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복잡한 범인의 정신적 내면이 얽혀있다.

“텍시 기사로 일할 때 한 여성 승객이 무시하는 말을 하는데 모멸감을 느껴 원통까지 쫓아가 성폭행으로 보복하였다”는 대전 발바리의 진술에서 어릴 적 느낀 여성에 대한 증오의 감정과



불자 세상보기

최 훈 동
한별정신병원장

발바리와 물 없는 목욕

여성을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과 결핍된 애정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엿볼 수 있다.

연쇄 성폭행범을 반사회적 인격장애나 성도착증을 가진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것으로 몰기 쉬우나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할 위험이 크다. 우리의 내면에 널려 있는 끈질긴 감각적 쾌락, 분노를 폭발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쾌감은 강렬한 유혹이어서 적절한 자제가 매우 어렵다. 이는 단지 양심이 결핍된 차원의 문제라기보다 끝없이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현대 사회의 병폐이다. 방송 매체와 인터넷 등을 통해 자극적이고 선

정적인 성문화에 노출되면서 심대 청소년부터 어느 누구나 성범죄에 발을 디딜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하겠다. 모든 범죄자들을 성격장애로 진단해버리고 말면 자신의 문제를 성찰할 기회를 잃게 된다. 격리시켜야만 하는 남의 일이 되고 만다. 성격과 욕망의 문제는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모두의 문제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은 쉽게 얻기 어렵다. 하지만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면 창피해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다. 그것을 치료와 예방에 활용해야 한다.

“출로 텅 빈 집에 살면서 스스로를 삼가는 삶은 훌륭하다.” <상웃따니까야>의 가르침이다. <숫타니파타>는 부끄러움을 제어장치로 삼고 진리의 수레를 끌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은 자동차의 브레이크 장치와 같다. 항상 성찰하는 가운데 부끄러워하고 결사항하여 유혹이 넘실거리는 욕망의 총들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맛따니까야>에서는 ‘물 없는 목욕’을 강조한다. 마음을 묵욕하지 않으면 욕망과 분노로 오염되어 악취를 풍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념(正念)으로 늘 자신을 살피는 것이 물 없는 목욕이라 하였다. 거듭되는 연쇄성폭행범의 소식을 접하면서 매사 삼가는 불자의 삶을 기대해 본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하라. 그리고 나의 몸이 많은 나라에 머물기를 바란다’. 그의 유언에 따라 유해는 49재를 마치고 한국을 포함 세계 여러 나라에 분산 안치될 예정이다. 마치 붓다의 진신 사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한국은 우리 시대 가장 뛰어난 예술가 중 한명을 만들어냈다. 백남준은 한국이 세계에 준 선물이다. 그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었다’ - 존 헨하르트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수석 큐레이터)의 평가는 적확하고 타당하다.

백남준은 비디오아트는 새로운 예술 영역을 창조했다. 새로운 예술을 창조한 것은 새로운 국가를 건국하는 것에 비할 바 아니다. 새로운 종교를 창출하는 것만큼 인류사의 획기적인 사건이다. 역사상 수많은 천재들이 명멸했지만 예술의 장르는 겨우 손꼽을 정도다. 백남준의 위대성은 앞으로 계속 연구되고 확장될 것이다.

백남준의 유언

백남준 예술에 동원되는 도구는 첨단 기기들이다. 그러나 그가 구현하고자하는 정신세계는 고전적이고 불교적이다. 현대라는 의자에 걸터앉아 과거와 미래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이 백남준의 예술이다. 첨단 미래를 잃되 교만하지 않고 인간관계와 우정을 존중하되 혁신과 도전을 사랑했다.

돌발성·유머·신선한 발상과 통찰력이 그의 정신이다. 그리고 문명에 대한 비판과 격정도 멈추지 않았다. 세계 곳곳에 뿌려지는 그의 유해와 그의 정신이 인류 행복에 기여할 것이다. 그의 몸을 낳은 한국, 그의 정신을 만든 불교가 인류를 위해 아름답게 회향되길 서원한다.

그의 명복을 빌면서 한편으로 우울한 생각 또한 떨칠 수 없다. 그가 만약 한국내에서만 활동한 예술가였다면 그의 성과가 어법하게 평가될 수 있었을까. 횡유적 사태라는 시대적 고통이 그의 죽음과 오버랩 된다.

인재를 키우고 인재의 역량을 아끼고 후원하는 자비가 은은하게 펼쳐지길 기원한다. 위대한 예술가·성인·학자는 그가 밟 디디고 있는 토양이 비옥해야 출현할 수 있다. 백남준의 유언을 승화시키고 그의 천재성을 나누어 담는 지혜에 인색하지 말자. 작은 용량이 속 행복에 안주하지 말고 미지(未知)를 향해 맨발로 뛰어나가는 용기에 박수를 보내자. ■ 이상성(소설가)

이렇게 들었다 용서

베훤은 중생을 위한 복의 그릇이요 참된 진리에 이르는 길이니 누구라도 보시의 공덕을 생각하거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내라. 베훤은 널리 평등하게 골고루 하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아야만 베훤은 마음속에서 나를 만나 구제받는 인연을 맺으리라. <중일아함경>

교통사고로 어린 아들을 잃은 부부가 아들의 안구를 기증하고 가해자 선처를 부탁한 사실이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조모(49)씨가 천천백력 같은 소리를 들은 것은 1월 13일, 친구들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들(13)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경찰조사 결과 가해자는 전발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이다.

조씨는 부라부라 아들을 병원에 데려갔지만 다음날 싸늘한 주검으로 변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가슴에 묻은 조씨에게 병원에서부터 각막이 급히 필요하다는 전갈이 왔다. 조씨는 아들은 어둠의 세상으로 갔지만 다른 이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안구 기증을 결정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조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가해자 이모(23)씨가 갓 군대를 제대한 예비 복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들을 떠올리면 용서할 수 없었지만 가해자의 미래를 생각해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해자를 구속시키는 것보다 새로운 기회를 주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조씨는 담당 경찰관과 검사를 찾아가 선처를 호소했다.

누구든 쉽게 ‘나눔’과 ‘자비’를 말한다. 그러나 실천에 옮기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조씨 부부의 모습을 보고 진정한 나눔과 자비를 다시 생각해본다. ■ 남동우(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불서읽기운동 적극 펼쳐야

얼마 전 방학을 맞아 아이들에게 선물할 불교관련 책들을 고르기 위해 서울 교보문고와 영풍문고에 들렀다. 예전에는 불교 서적 코너와 기독교 서적 코너의 크기와 도서량이 거의 같았었는데 지금은 불교 서적 코너가 과거의 반 크기로 축소되어 있었다. 반면 기독교 서적 코너는 더 넓어지고 서가 자판도 베스트셀러, 신간, 성경 등 3개로 늘어나 있었다.

이렇게 불교 서적 코너가 축소된 광경을 보면서 당혹스러운 감정이 일어났다.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직원에게 상황을 물으니 장기화된 출판 불황으로 불교서적 출간이 대폭 줄어들었고, 불서를 찾는 사람들보다 기독교 관련 서적을 찾는 사람이 많으니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부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불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봤다.

먼저 ‘범종단 차원의 불서읽기 운동 전개와 종단과 사찰 단위의 도서관 설립’이 필요하다. 또 초하루나 보름 법회, 또는 각종 재일 때마다 불서를 선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야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각 사찰에서 불서읽기 운동에 적극적이면 일정량의 불서가 소화되고 자연스럽게 불교출판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부처님의 바른 법이 전해지는데 불서는 없어서는 안 될 수레와 같이 때론이다. 김호식(서울시 서대문구 홍제2동)

종교갈등 유발 언행 신중해야

10월 동전 속의 다보탑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새 10원 동전을 빠른 시일 내 발행키로 함에 따라 기존 10원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 도안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다보탑 도안의 존치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종교단체간 알력 때문이라고 한다.

언론보도는 그 근거로 지난 1966년 다보탑 도안이 채택됐으나 기독교계 등은 불교 예술품인 다보탑 도안이 동전에 채택된 것에 대해 굵지 않은 시선을 던져왔으며, 따라서 새 동전 도안 채택 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 화폐를 도안하고 발행하는 한국은행 발권국은 1966년 현재의 다보탑이 도안된 10원 동전이 발행된 이후 종교계의 항의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오보인 셈이다.

현재 전 세계는 종교간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종교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총칼을 들이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때 지극 종교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는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다. 장은희(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문화재 관리 역량 키우자

오랜만에 불교계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의정부 지방법원이 양주 회암사에서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이 불교계에 있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회암사에서 출토된 ‘맛뿔, 패돌, 돌계단 및 석축 등’ 지상 유물, ‘楡庵(楡岾)’이라 새겨진 청동발우, 각종 칠기류, 백자 등의 출토유물이 보다 온전하게 보존돼 후손들도 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볼 것이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불교계의 문화재 관리 능력’에 대한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불교계가 관리 능력도 없으면서 무조건적으로 소유권만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과거 불교계가 문화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불교문화재는 불교계가 소유권을 갖고 관리해나가야 한다는 것은 불변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혹시 불교계가 문화재 관리에 소홀하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염태규(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병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전수반 모집

참선공지도사 神 임상최면사 神 치유명사가

◆ **참선공의식 사례**

- 48세 여성이 이월달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묵이 180° 돌아가서 한의원, 병원, 기공, 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의식에 의해 단 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걸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 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었다.
-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 50세 중진 스님은 영기가 밧의 되어 눈에 뻤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타듯이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특별전수과정

목요반 14:00 - 18:00 (12회 과정)

토요반 14:00 - 18:00 (12회 과정)

전 수 비 300만원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이영하

조상천도비법	칠차원 생명법
자비손 치유법	전생 치유법
음성 내공법	내생 치유법
빙의 · 해리 치유법	

◆ 교육후 참선공 자격증 神임상최면 자격증 神치유명사가 자격증 발급.
◆ 지도자과정 전수 후 사회활동 하실 분 협회에서 적극 추천 · 후원 합니다.
◆ 불치병, 난치병, 신병 상담 환영. 주지스님이 직접 상담.

권 신선암 참선공협회 · 神치유명상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